



임금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왕직(王職)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교리신학원 원장

오늘의 첫째 독서인 2사무 5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 계약의 대목에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지켜줄 것,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려줄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오늘날의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독서에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임금에게 부여되는 셋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역할입니다. 임금의 신학적 역할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만을 섬기고, 다른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 신학적 역할에 구약의 역사서는 매우 큰 비중을 할애하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다윗 이후의 임금들이 바로 그 신학적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역사서는 설명합니다.

둘째 독서는 콜로 1장입니다. 특히 콜로 1,15-20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창조론적으로 노래하는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그 찬가를 이끄는 12-14절에서 바오로는 “빛의 나라”와 “어둠의 권세”를 대비시키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빛의 나라는 곧 “아드님의 나라(國)”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그리스도 찬가는 아드님의 권능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 권능의 마지막 목적지는 ‘평화’와 ‘화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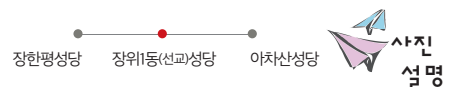
오늘의 복음인 루카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두 명의 죄수를 만납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다른 한 죄수는 “선생님의 나라(國)”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청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성서 신학자들은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을 장소적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느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그 하느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예수님의 일치 아래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 동일성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지배의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권능이라는 점입니다(마르 10,45 참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안에서 (지배가 아닌!) 섬김의 왕직(王職)을 수행합니다. 하느님과의 일치 아래서,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세상의 화해와 하느님 창조계의 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수고로운 섬김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왕직(王職)입니다.



장위1동(선교)성당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8길 13

장위1동성당은 2006년 11월 선교 성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성당은 1987년 설립된 빈민사목위원회가 교구의 사목 방침에 따라 수립한 2000년대 복음화 계획에 의거하여 그전의 도시 공소였던 곳을 본당으로 승격함으로써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위1동(선교)성당은 도시 공소의 본당 승격과는 달리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사목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롭게 신설된 지역입니다. 본당은 2006년 11월 월곡동, 장위동 재개발 임대 아파트, 뉴타운 사업 지역인 장위 1, 2, 3동을 관할구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